

식약처, 아세안 회원국 대상 식품안전 비상대응 훈련, 평가자로 참여

- 아세안 회원국 식품안전비상대응 모의훈련 평가 등 기술지원
- 한국 식품안전 비상대응 체계와 대응 경험 공유로 국제 협력 선도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세계보건기구(WHO)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* 활동의 일환으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「동남아시아 국가연합(이하 “아세안”) 식품안전 비상대응(FSER**) 모의훈련」에 평가자로 참여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.

* WHO 협력센터(WHO Collaborating Centre for Food Safety Emergencies) : 국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선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센터로 지정받음(2025.11.6.)

** ASEAN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(FSER) Tabletop Simulation Exercise

이번 모의훈련은 아세안 회원국의 식품안전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 등 아세안 11개국과 WHO 지역사무소, 아세안 사무국 등이 참석하였다.

모의훈련에서는 제조공정 오류로 요오드가 과량 함유된 음료가 여러 국가로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▲사고 인지 ▲위해평가 ▲국가 간 정보공유 ▲제품 회수 등 안전관리 조치 ▲소비자 정보 제공 등 식품안전 비상대응 전 과정을 점검하였다.

식약처는 훈련 평가자로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비상대응 체계와 실제 대응 우수사례 등을 설명하며 참가국에게 경험을 전달하였으며, 국가별 대응 체계의 강점 설명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.

이번 활동은 식약처가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협력 사업으로,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WHO와 함께 식품안전 비상대응의 국제적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식품안전 대응 체계 분야에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	책임자	과 장	김현진 (043-719-1751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현 (043-719-1752)





식약처, 세계 최초 식품안전 비상대응 WHO 협력센터 지정(2025.11.6.)



아세안 회원국 대상 식품안전비상대응 모의훈련 평가(2026.7.7.~7.9.)